

전남 관광객 5000만 시대 눈앞

전남문화관광재단 역할 주목

홈페이지 개편·행사 유치 등

주민·청년 전문가 양성 박사

지난해 전남도내 주요 관광지 입장객이 42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남 관광객 5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지난해 4월 전남문화예술재단에서 확대·개편된 전남문화관광재단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14일 전남도, 전남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전남의 주요 관광지 입장객 통계가 2015년 3945만명에서 2016년 4200여 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관광객 증가의 배경에는 전남문화관광재단 확대·개편 전략이 유효했다는 평가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지난해 인지도 향상, 전남관광 활성화와 위한 마케팅 기반 구축, 전남형 관광사업 개발, 문화·관광분야 전문성 제고 등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문화관광재단의 도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홍보 콘텐츠 다각화, 재단 슬로건(J-ACT·행동하는 재단) 개발 등 전략적인 홍보 추진으로 재단 언론보도가 2015년 957건에서 2016년 1737건으로 780건이나 대폭 늘었으며, 홈페이지 전면 개편 이후 방문자 수도 평균 1만명 이상으로 5배 이상 늘었다.

또 전남도 관광과와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각종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결과 전세기 11개 노선 127회 유치, 크루즈 관광객(3331명) 등 해외관광객 1만9148명 유치, 각종 학술대회 유치 등 마이스

(MICE) 8건 6286명 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전남 관광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관광정책 연구와 동향분석을 비롯해 주민주도형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섬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사업', '전남형 관광두레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전문가·청년기획자 관광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오영상 전남문화관광재단 사무처장은 "최근에는 관광전문가 정규직 채용을 마쳤으며, 앞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관광연구 및 관광상품 개발 등 전문기관으로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출범 2년차인 올해는 전남문화관광재단의 중장기 비전과 정책 수립 등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식중독 감소 전남, 4년 연속 식약처장상

광양시·곡성·고흥·함평군 식품안전 우수 기관

전남도가 2017년 제16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식약처가 주관한 식품안전관리 평가와 식중독 예방 평가에서 모두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4년 연속 식약처장상을 수상했다.

기초 지자체는 전국 수상 11개 시군 중 광양시, 곡성군, 고흥군, 함평군 등 전남 4개 시군이 식품안전관리 우수 기관으로 식약처장 표창을 수상, 식품안전관리 분야

에서 전남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식품안전의 날(14일)은 올해 처음으로 법정 기념일로 지정돼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념행사가 열렸다. 전남도는 그동안 도내 음식점 및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 6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부정 불량식품 근절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 활동, 중상자 교육, 대국민 홍보 등을 펼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2개 시·군에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푸드트럭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정부시책에 부응해 우수 기관 연속 선정에 기여했다.

또 전남지역 2만7000여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홍보를 강화한 결과 발생 환자 수가 2013년 514명에서 2014년 382명, 2015년 177명, 2016년 151명으로 크게 줄었다.

조용수 전남도 식품안전팀장은 "전남을 찾는 관광객들과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식중독 발생 제로화 추진' 등 식품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도, 임산부 전용 태교방 운영

전남도는 "15일부터 출산 친화적 직장 만들기를 위해 임산부 전용 태교방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정의 임신한 공무원들에게 모성 보호 시간과 휴식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임산부 출산까지 편안하고 행복한 직장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한 것이다. 청사 5층 심정실에 마련된 태교방은 24

m 규모의 공간에 임산부 전용 리클라이너 소파와 공기압 발마사지기, 태교도서 등 태교와 휴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꾸며졌다. 임신한 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태교방에서는 태교 음악 감상, 임신 부부공무원 태교요가, 산후 우울증 테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활동도 가능

하다. 김갑성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저출산을 극복하고 인구절벽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공공기관부터 복지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며 "다양한 임산부 배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외에도 출산 후 1년까지 당직 면제, 임신 직원 전용 주차면 제공 등 임산부 배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도, 어업인 성공담 온라인 연재

전남도가 어업인의 성공담인 '금빛바다 이야기'를 15일부터 매일 첫째 주와 셋째 주 월요일 전남도정 누리집에 연재한다. '금빛바다 이야기'는 청년과 귀어인, 여성 어업인 등이 수산업 분야에서 성공을

일궈내기까지 겪은 온갖 어려움과 그 난관을 이겨낸 과정의 감동어린 이야기를 생생한 현장 리포트 방식으로 담아낸 연재물이다. 제1화는 완도로 귀어한 이현구(38)씨의

성공담이다. 24살에 서울로 올라가 직장 생활을 하다 지난 2012년 고향으로 내려와 전북 양식업으로 성공하기까지 겪은 사연이 소개된다.

'금빛바다 이야기'는 전남도 누리집 초기화면에 나타난 배너를 누르면 연재 어디서나 전자책으로 만나볼 수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군산~충남 서천 동백대교 7월 부분개통

통행 30분→5분 단축

연말 완전 개통 목표

전북 군산시 해망동과 충남 서천군 장항읍을 잇는 동백대교가 오는 7월 부분 개통하기로 하면서 금강을 사이에 둔 양 지역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군산시에 따르면 동백대교는 이른바 착공 9년만인 올해 연말 완전개통을 목표로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동백대교는 국비 2372억원을 들여 왕복 4차로에 총연장 3.18km, 폭 20m로 건

설중이다. 군산에서 장항 방향으로의 인도로도 개설된다.

다리가 완공되면 현재 군산 하굿둑을 통해 30분 정도 걸리는 양 지역간 통행시간이 불과 5분 정도로 단축돼 교류 활성화, 물류비용 절감, 관광객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동백대교는 애초 2013년 개통이 목표였지만 일부 설계변경, 예산확보 지연, 새만금 지중선로 이설 문제 등이 겹치면서 공사가 늦어졌다.

그나마 올해 초 대교 공사의 최대 걸림돌로 꼽혔던 교각이 세워질 곳을 지나는 새만금 지중선로(154kV) 이설작업이 완료되면서 공사에 속도가 붙었다.

현재는 교각과 받침대, 옹벽, 상판, 램프 설치 등의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공사현장을 점검한 문동신 군산시장은 "양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광자원 등을 공유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윈윈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동백대교 주변 미관을 해치는 건축물 외관을 정비하고 개통에 따른 교통혼잡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군산시는 특히 시설이 낡은 월명산 전망대로 개보수를 서해 낙조와 동백대교를 볼 수 있게 하고, 다리와 옛 도심권 근대역사관광지 연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경로당에 운동하러 간다"... 고창군 체조교실 호응

고창군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경로당 내 체조교실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진>

고창군은 2015년부터 매년 60개소의 경로당을 선정해 노인들의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용품을 지원해주고 건강

체조교실을 운영 중이다. 만성 관절염 등 퇴행성 질환 예방과 신체활동이 부족한 노인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문을 연 건강체조교실은 전문 강사들이 나서 요가 매트, 줄 안마기, 스트레칭용 밴드 등을 활용해 노인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돕는다. 고창군 보건소 관계자는 "농촌 노인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비만 예방 식이요법, 구강관리, 금연, 절주 등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습관도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안군 "21일은 몸에 좋은 오디 먹는 날"

부안군이 지역 특산품인 오디의 소비 촉진을 위해 5월 21일을 오디 먹는 날로 정했다.

부안군은 "지역 특산품인 오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 '오디(5) 먹고, 돌(2)이 하나(1) 되는 날'

이란 뜻으로 5월 21일을 '오디 데이'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디는 필수 아미노산이 다양 함유돼 있으며 갈슘·칼슘·비타민C·철분이 풍부하고 항산화 색소가 많아 노화 억제 등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다.

부안의 대표 작목인 오디는 재배면적이 전국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이 1800여t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특히 '청정 누에타운 특구'로 지정된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유유마을에서 매년 6월 초에 '부안 참봉 축제'가 열린다. 이 마을 30여 농가는 38ha의 뽕나무밭을 가꾸고 매년 5000만 마리의 누에를 생산하고 있다. /부안=김민준기자 jun@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업용지 / 주택 / 투자

1.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상가, 사무실, 커피숍 최적지(신주택/구창고) 매 5억9천
2. 나주시 산포면 소재지 2차선 도로변 슬라브주택(2001년 준공) 99㎡ 공장198㎡ 대지823㎡ 투자유망 매 6억9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2차선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남향 2층슬라브주택 대지 655㎡ 건물 169㎡ 점포증축가능 매 3억3천만원
4. 나주시 세지면 소재지 상가 및 주택 대지 752㎡ 식당 175㎡ 주택 83㎡ 주차장 양호 매 3억5천만원
5.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연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75㎡ 점포26㎡ 매 2억원
6. 나주시 세지면 통곡리 대지 및 전 2,940㎡ 슬라브주택 99㎡ 부속 건물 66㎡ 신축5년경과 매 2억5천만원
7. 나주시 성북동 대지 및 전(2층주택 상가포함) 3,049㎡ 나주시내 중심지 2차선도로변 2층주거지역 상가 빌라 원룸 요양시설적합 축합마트 현대아파트매 매 19억9천만원

농지 / 투자

1.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배과수원 14,870㎡ 혁신도시인근 계획관리 생산관리 매 25억원
2.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배과수원 및 대지 8,965㎡ 슬라브주택, 저운창고 매 8억5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전 3,300㎡ 2차선도로변코너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근거리 투자유망 매 8억5천만원
4.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 접혁신도시근거리 매 5억8천만원
5.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전 18,838㎡ 하우스농사중 2차선도로변 농림지역 22억원
6.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배과수원 5,655㎡ 4차선국도변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 18억8천만원
7.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연사무소매 8,495㎡ 2차선도로변 창고 농산물가공적합 매 2억2천만원
8. 나주시 대호동 전 5,068㎡ 도시지역, 자연녹지 투자유망 매 2억9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준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판선·전원주택지

- 함평군 수봉면 월천저수지와 바다인근 대지 1197㎡ 4300만원
- 남평읍 우산리 대지 774㎡ 광주에서 15분거리 6700만원
-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땅 32454㎡ 판선과 농장적합 5억
- 보성군 회천면 전일리 바닷가 전망좋은 땅 6337㎡ 3억9천
- 신안군 지도읍 내암리 13662㎡ 농장·전원생활용 1억원
- 보성군 회천면 전망좋은 바닷가 5360㎡ 매도 4억9000
- 구례군 토지면 문수리 임야 40만㎡ 판선·전원주택·별장 등 다용도 개발 적합 매도 12억(운조루 유통전시판매)
- 장성군 북이면 연사무소에서 3km, 입암산길 전과산 78197㎡ 한옥마을, 전원주택지 적합 경관·교통중용 11억

투자·매도·교환

- 월산동 재개발가능지 대지 195㎡ 주택 63㎡ 8800만원
- 장성군 남면 소재지 그린벨트 김나무밭 10958㎡ 투지에 양호 6억8천
- 독립섬 56233㎡ 신안군 임태면 새천년대교 인근 3억5천
- 소촌동 자연녹지 1530㎡ 투지에 양호할 10억원
- 유통 상업지 331㎡ 상가·유희 등 적합 매도 4억3천
- 월산동 보아리파트부근 상가H층 65㎡ 다용도임 6300만원
- 함평군 해보면소재지 주거지역 전 4329㎡ 매도 2억원
- 대인동 상업지 787㎡ 주상복합건물 적합 14억3천
- 서구 마북동 2251㎡ 다용도 건물 신축 적합 21억
- 담양군 수북면소재지 주거지역 전 3791㎡ 소형아파트 적합 15억2천
- 화순읍 복곡아·매실·김나무농장 40059㎡ 매도 10억5천
- 충장로5가 상업지 490㎡ 다용도 가능 7억7천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3273㎡ 아파트 요양시설 적합 4억5천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833㎡ 창고·공장용 1억원

상가건물

- 월산4동 새마을금고부근 2층상업건물 대지 226㎡ 매도 4억2천
- 서구 교동요지 대지 1657㎡ 건평 7768㎡ 요양병원용 적합 49억
- 월산동 대지 126㎡ 건물 297㎡ 은행 4억 매도 6억6천
- 월산동 농성초건너편 6세대 대지 206㎡ 건평 328㎡ 3억6천
- 월산동 운전각부근 대지 160㎡ 건물 419㎡ 은행2억 매도 5억3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비금도내에 있는 섬 (팻섬)
- 향후 개발가치 100억
- 분할 / 지분매매 가능
- 타 부동산과 교환가능
- 매매 - 7억 (평당5만원)
- 주인직매
- H.010-3605-50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디터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